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마음 흔들리면 세상이 다 흔들려”

‘죽어야 너를 보리라’ 뜻은

스님께서 질문에 답하시는 중에 가끔 ‘죽어야 너를 보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을 다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몸중이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니 열반, 스무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모두들 내가 한다, 내로라 하고 자기를 앞세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참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생각이 죽어야,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심이 되어야 현재의식의 나와 잠재의식의 나가

에 따라 갖가지 모습의 고가 닥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고 내 집을 다스릴 수 있어야 바깥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듯이 크나 적으나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는 누구나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거기서 누적된 문제를 지금의 내 속에 다 짊어지고 있는데 천차만별의 마음의 차원이 있었기에 천차만별로 문제가 누적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별에 갖가지 세계가 있는데 이 몸중이에도 수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주동자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

“마음의 주장자 확고하면 천차만별 문제 닦쳐도 거기 속지 않을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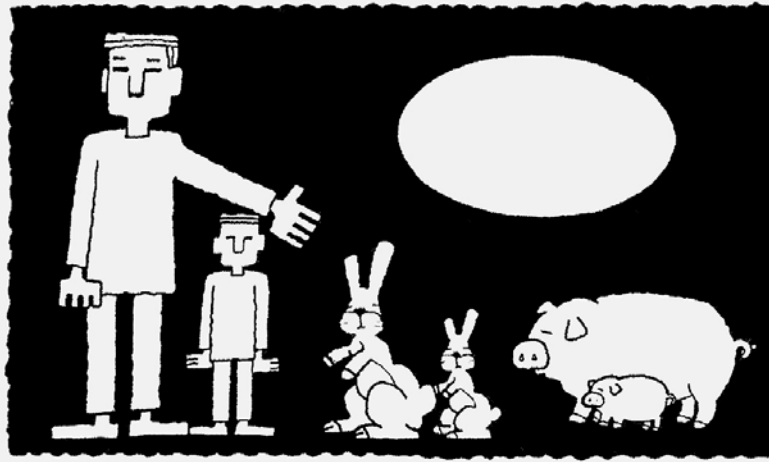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풍랑맞은 배 살든 죽든 선장 믿어야 “문제해결 바라며 믿는건 참믿음 아냐”

부자(父子)상봉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따르면 타락신앙으로 가지 말고 자력신앙으로 내가 내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데다 목적을 두어야 진짜 공덕이 있다 이겁니다.

달마대사가 양무제더러 아무 공덕이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했다는 걸 앞세우면 저 하늘에 달을 만들 지었더라도 그건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몸중이는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살게 됩니다.

사람마다 겪는 고통 다른데

사람마다 사는 모습을 보면 완벽 한 인생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마음고생을 겪는다면 질병·장애·빈곤·정신분열·사고 등으로 인해 갖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듣자면 해결같이 그게 다 인과법에 의해서라고 하는데, 개개인에게 닥치는 고통의 내용이 다른걸 보면 원인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요.

그게 다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차원

장자가 확고하다면 천차만별로 문제가 닦쳐도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아서도 안 될 일이지요.

우리가 경전을 통해 말씀을 접하고 불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믿고 있지만 진짜로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나를 있게 한 근본 법의 부모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경우라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처도 가능하구요. 어떤 문제가 닦쳐오든 한번 굴러서 놓고 대처할 수 있어야지 언제 그 원인을 따지겠습니까? 따진다고 그 많은 기막힌 사연들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욕심때문에, 때로는 분노때문에, 때로는 살생을 많이 한 까닭에 오는 문제의 인연들을 어떻게 이루 잡자 해아리겠습니까? 고라는 게 어느 때는 인과성 업보성으로 오고 어느 때는 세균성으로 오고 영계성으로 오고 운회성으로 오는데 말입니다.

가령 누가 뱀 굴을 뒤져서 뱀들을 다 때려 잡았다고 합시다. 뱀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공비학산을 냈으니 그 슬픔과 원한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뱀들이 그러겠지요. 그래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너도 부모 잃고 자식 잃고 자신까지 죽는 그 고통을 당해봐라 할게 아닙니까? 그것들도 생명인데 말입니다. 그러

면 영락없이 업보보다가, 유전보다가 착 달라 붙어 그 과보를 치르게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을 결코 우습게 생각해서 안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일들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영계성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심을 주인삼아서 잘 다스려 나가지 못한다면 주인이 집을 비운 것이나 같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주인이 있는데 그걸 똑바로 세워놓지 않고 바깥으로 찾고 바깥에 매달리고 바깥 것에 기도하고 절을 한다면 주인없는 집이라는 걸 광고하는 꼴이 될 뿐 아니라 제 주인 제쳐놓고 바깥에서 주인을 끌어들이는 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주인없는 집

이 되어서 마치 어른들은 다 출타하고 아이들만 남아서 저 살판났다고 마구 뛰어들고 집안 꼴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죠.

또 내 주인이 있는데 또 주인이 또 하나 들어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해라 하지말라... 이런 은통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어느 집에 주인이 둘이면 하인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자인 육신은 은통 고장나고 다치고 결판이 나고 마는 거죠.

인과성이라 하는 것도 말입니다. 향을 쐬던 종이에선 향내 나고 생선을 튀었던 새끼줄에선 비린내가 난다고 하듯이 자기가 지은 인연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

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보고 듣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악종의 인연을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선을 튀었던 새끼줄에서 비린내가 풍기듯이 발의 발 나쁜 일들이 생기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속을 썩이고 불구자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준 게 아니라 비린내가 배어버리듯이 내 속에 악종으로 주둔해 있다가 인연을 만나면 고리에 고리가 물러서 나오게 있습니다.

종자를 심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다고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 속에 다 주둔해 있으니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주 없

져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 몸 속에 주둔해 있으니 유전성이란 문제가 나옵니다.

가령 누가 속병을 앓고 그 자식이 또 속병을 앓는다고 합시다. 과거에 남에게 속터진 일을 했고 그걸 대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리가 고리를 걸어 꿰어지듯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토끼는 토끼를 낳고 돼지는 돼지를 낳지 먼 종자를 낳을 리 없지 않습니다.

돌연변이가 생긴다면 모를까 그렇게 염주알 꿰어 있듯이 꿰어져 있어서 그걸 대처해서 돌려놓지 않는 한은 염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깨끗이 설거지 합시다”

그러므로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굶을 수도, 물릴 수도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도 없구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온 구멍에다 다시 놓아라, 숨을 내쉬는 구멍으로 숨을 들이 쉬듯이 말입니다. 마음이 들고 나는 자리도 한구멍입니다. 딱 한구멍이요.

부처님께서는 한 털구멍에서 보살이 나오고 모든 세계가 벌어진다 하셨습니 다. 바로 마음 자리 한구멍이죠.

아무튼 지은대로 받으니까 차원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땅 속을 거어다니는 벌레로 좌천이 됐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밥 냄새 국 냄새를 맡아야 사람에게 그러질 못하니 독사 굴에 들어 가면 그냥 독사지옥이고 땅 속의 미물이 되면 그냥 무간지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는 동안에 영계성·유전성·인과성...을 다 녹여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로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곡차곡 입력해서 내 나오는 것이니 나오는 데로 다시 입력해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바뀌집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바뀌집니다.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55)

새 화판에 어떤 그림을 그려넣을 것인가.

“마음이 육신을 끌고 다닌다. 마음이 삶의 내용을 좌지우지 한다. 보살을 느끼며 당당하게 사는 것도 마음에 달렸으며 찌푸린 모습으로 사는 것도 마음에 달렸다.

마음엔 모든 게 고루 갖춰져 있다. 반듯한 삶도 그 속에 있고 삐뚤어진 삶도 그 속에 있다. 그러니 불을 밝히고 사는 것도 제 자유이고 어둠에 사는 것도 제 자유이다. 마음에서 불이 치밀면 그대로 화탕지옥에 들 것이고 마음에서 탁 놓아버리면 바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찰나찰나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어디에 붙잡혀 있거나 놓쳐 있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자동기이다. 과거의 습 때문에 얽매어서 찢찢매매기 하지만 본래는 어디에나 걸림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대로 통과, 통과 할 수 있다.”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는다. 더우면 서늘한 그늘을 찾는다. 누구에게 물어 보거나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육신이 따르

는 것이다. 거기엔 구속도 조건도 없다. 자연스러움이 있을 뿐이다.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물건을 내리려고 할 때 키가 모자라면 발돋움을 해본다.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면 긴 막대를 이용하거나 받침대를 놓고 올라선다. 키가 높으면 키를 키웠다 낮추었다 할 줄 알고 제 팔을 늘였다 줄였다 하지 않는다. 마음이 가면 몸이 따른다. 한 생각에 키를 조절하고 팔 길이를 바꾼다.

키가 작아서 선반 위의 물건을 내릴 수 없다고 탄식만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어린 아이나 바보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라도 물건을 내릴 방법을 안다. 그쯤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지혜로운가. 키를 키웠다 낮추었다 할 줄 알고 제 팔을 늘였다 줄였다 하지 않는다. 마음이 가면 몸이 따른다. 한 생각에 키를 조절하고 팔 길이를 바꾼다.

화판 앞에서 작품을 구상하는 화가를 보자. 그는 붓을 들기 전에 무엇을 그릴 것이며 어떤 영감을 담을 것이며 구도는 어떻게 할지를 꼼꼼히 생각한다. 마침내 작품구상이 끝나면 붓을 들어 물감을 찍어 바르기 시작한



다. 여러번의 붓질 끝에 한 작품이 완성된다. 그리고 그 작품은 때때로 명작이 되기도 한다.

먼저 마음의 설계가 되고나서 몸이 움직이고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모두가 마음의 산물인 것이다. 저 짐승 가운데 눈·귀가 유난히 밝은 늑, 날랜 늑, 굴을 잘 파는 늑 등 갖가지 모습이 있는 것도 다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진화의 결과물이다. 돌연변이가 아닌 다음에야 무엇을 하고 싶다는 한 생각이 짙고 짙어 육신의 모습까지도 바꾸게 된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내용도 각자 마음먹기의 결과이다.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다. 마음 가는 데 행동이 따르고 그것이 짙고 짙어 오늘의 내 삶을 그려낸 것이다. 따라서 찌들었던 황달하든, 곤궁하든 부유하든 그것은 다 내 탓인 것이다. 화가인 내가 인생이라는 화판에 내 마음대로 붓질을 해 온 그 결과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이요 내용인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고 어디에다 대고 원망을 할 것인가. 팔자도 내 탓이요 운명도 내 탓인 것을.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설계하는 주

인공이라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들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네 마음대로 얼마든지 그림을 다시 그려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것이니 지금이 바로 새 화판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새 화판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매일 매일 새 것으로 바뀌고 좋고 찰나찰나 바뀌고 좋다. 하지만 내가 어제 그리던 그림을 오늘도 계속 그리고자 한다면 내 삶은 그 작품이 그 작품인체로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면 더 좋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 허구 한 날 똑같은 붓질만 하게 했던 그 마음을 바꿔야 한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뀐다. 건강도 사업도 마음이 가는대로 따라간다. 무엇보다도 찌든 삶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어제는 어제다. 묵은 화판만 들여다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새 화판에 무엇을 그릴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하자.

협찬 : 김대성